

# 한국거주 고려인 청년의 진로활동

남혜경<sup>1)</sup>, 이미정<sup>2)</sup>

## Career Activities of Koryuin Young Adult in Korea

Nam Hyekeyeong<sup>1)</sup>, Mijung Lee<sup>2)</sup>

### 요약

본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의 여러 독립국가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고려인 청년들의 진로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고려인 청년 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진로목표는 외환딜러, 교육과 사업컨설팅회사 설립, 한국어 자격증(4급)을 취득함, 회사에 취직함이 있었다. 진로장벽은 내재적 요소로는 한국어 능력과 음식문화적응이 있었으며, 외재적 요소로는 한국사회의 수직적 조직사회에 적응하는 것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진로준비행동에는 정보를 찾는 활동으로 친구, 선배, 책,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구하였다. 도구를 준비하며 실제적 실천 활동으로 한글교육을 위한 어학당에 등록하고, 재외동포재단에서 봉사하며 선배들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고 학업을 수행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고려인 청년들의 진로목표에 담긴 의미는 첫째, 가족, 둘째, 다른 사람을 도움, 셋째, 삶을 즐김이 있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진로를 수행하도록 돕는 것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이 담긴 요인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더 좋은 상태에 이르러고자 하는 필요성 둘째, 가족의 격려 셋째, 어려운 일을 완수했던 경험의 힘 넷째, 성공한 사람들을 통한 동기부여 다섯째, 실제로 실천함 여섯째, 유용한 정보 일곱째,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주제어: 고려인 청년, 진로목표,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문화

###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research on career activities of the Koryuin groups moved from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and countries around the region to Korea. For this purpose,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is used to expend understanding of experiences of six Koryuin through the interview.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as followed: First, the career goal of the subjective was becoming a currency dealer, establishing a company of education or business, getting a 4th certificate of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and employed as a businessman of a company. The internal obstacles of career achievement are lack of Korean fluency and adjustment of cultural food, on the other hand, the external obstacles are vertical organization of Korean society and financial problem. In preparatory of the career activities, the Korean

Received (May 10, 2016), Review Result (May 24, 2016)

Accepted (May 31, 2016), Published (July 31, 2016)

<sup>1)</sup>Dept.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 Inharo. Nam-gu Incheon, Korea  
email: ssalguaja@naver.com

<sup>2)</sup>(Corresponding Author) Dept.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 Inharo. Nam-gu Incheon, Korea  
email: pro03@hanmail.net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3048350)

minorities use resources from friends, seniors, books, Russian religious community, seminar, forum to collect the information needed. As they perform the preparation, the Korean Minorities admit the Korean language course, do service projects in Overseas Koreans Foundation, communicate with seniors about the career, read books, and study hard. In addition, the meaning of having a career goal for the Koryuin is firstly for family, secondly for helping others, thirdly for having an enjoyable life. In order to support these groups to continue their career activities in their experience, there are seven main factors to contribute the support: 1. necessity of advancing into better life environment, 2. encouragement of family members 3. influence of achievement experiences 4. motivation of successful stories found on books or other people 5. practice 6. useful information 7. service.

Keyword: Koryuin Young Adult, Career Goal, Career Barrie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ulture

## 1. 서론

고려인들의 이주는 1869년 가을 지금의 북한지역에 큰 홍수와 서리로 인하여 수확을 망치고 대기근이 발생하자 4,500명의 한인들이 한꺼번에 러시아 땅으로 향하면서 시작된 1차 이주로부터 을사조약과 일제에 의한 한반도강제점령기에 이루어진 2차 이주를 거쳐 1937년 스탈린에 의한 강제 이주에 이르기까지 고려인들의 이주에는 한인들의 고난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있다[1].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들은 한국으로의 동화를 원하지만 한국의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2].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는 고려인청년들을 대상으로 진로목표와 진로준비행동에 대하여 연구하여 이들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헤쳐 나가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는 진로는 한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직업과 학업, 결혼과 같은 인생의 모든 경로를 포괄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3]. 따라서 고려인 청년들이 진로를 어떻게 수행해 나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처한 삶의 환경에 대처하며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고려인의 현황 및 특성

고려인이 자신을 '고려인'이라고 말할 때의 의미는 남한의 한국인도, 북한의 조선인도 아닌 혈통의 동질성은 가지고 있으나 거주국의 문화와 국민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중정체성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4]. 정진아[5]는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풍토에서 성장한 고려인의 개인주의는 한국인의 집단주의와 충돌하고 있었으며, 한국사회의 권위주의에 대하여 나이와 직업, 신분상의 위계를 거부하는 고려인의 반권위주의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였다. 신현준[6]은 고려인에게 현실의 한국은 낭만적 상상속의 역사적 조국과는 거리가 멀고, 최종 목적지도 아니라고 하였다.

## 2.2 진로목표

개인은 목표가 분명하고 확고할수록 진로발달 및 선택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이나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된다. 또한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의지와 신념도 강하고 실질적인 노력도 더 많이 기울인다[7]. 사람들은 목표를 세움으로써 행동을 조직화하고 성취를 추구하게 된다[8]. 목표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는 서로 관련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학업에 대한 낮은 자기효능감은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은 목표를 수정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9].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결과기대와 직업획득 가능성 기대가 높아지고, 이것은 진로목표 추구활동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결과기대가 높을수록, 직업획득 가능성이 클수록, 진로목표 추구활동이 많아진다고 하였다[10].

## 2.3 진로장벽

진로장벽은 한 개인의 진로가 지속되지 못하고 억제 또는 방해받는 상태를 이르는 개념[11]이며, 진로장벽에는 심리적 특성을 가진 내적 장벽과 환경을 통해 주어지는 외적 장벽이 있다. 내적 장벽의 요인으로는 자아개념, 가치관, 성취동기와 같은 개인의 특성을 말하며 외적 장벽은 사회, 문화, 경제적인 구조나 차별 그리고 근무환경과 같은 요소를 말한다[12].

## 2.4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이란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며 다음의 몇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이다. 둘째, 진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는 활동으로 기자재나 교재, 장비, 자격증 등을 위해 구입하거나 학원에 등록하는 등의 행동이다. 셋째, 준비된 도구를 이용하여 실제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13]. 자신의 목표에 관련된 활동을 실천하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이룰 가능성을 더 크게 한다[9]. 이와 같이 진로준비행동은 한 개인이 진로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실제로 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참여자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으며, CIS와 주변 지역의 고려인 후손 4세대인 청년들이다. 현재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고려인 청년 3명과 한국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중인 고려인 청년 3명으로 모두 20대의 청년들이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Fig. 1] participant characteristic

참여자 특성	나이	출신국	한국체류	최종학력	직업
연구참여자 1	29	러시아	2년	러시아에서 회계학과 대학4년 수료	근로자
연구참여자 2	26	우즈베키스탄	2년	우즈베키스탄 에서 건축과 대학졸업	근로자
연구참여자 3	22	우즈베키스탄	4년	한국에서 경영학과 재학중	학생
연구참여자 4	22	우즈베키스탄	4년	한국에서 경영학과 재학중	학생
연구참여자 5	20	러시아	4년	한국에서 경영학과 재학중	학생
연구참여자 6	22	우크라이나	1년	우크라이나에서 대학 2년 중퇴.	근로자

또한 연구방법으로는 고려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개별과 집단인터뷰로 구분된다. 개별인터뷰는 연구자가 연구참여자 개인에게 질의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조사방법으로, 특정대상에 대하여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14]. 고려인의 청년들이 한국에서 적응해 나가는 경험과 삶의 목표와 가치 그리고 직업과 진로에 관한 고려인 청년들의 의견과 경험을 찾기 위해 심층인터뷰 방법을 활용하였다.

### 3.2 자료수집 및 분석

고려인 청년들의 진로목표와 진로준비행동을 알아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참여자들과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는 2016년 2월 16 ~ 2016년 3월 19일까지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위한 소요시간은 각각 70~80분가량 되었다. 인터뷰 장소는 연구참여자가 다니는 교회, 연구참여자들이 다니는 각 대학의 벤치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 후 전사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진로활동사례별 분석

본 연구는 고려인 청년들의 진로목표와 그에 따른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장벽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4.1.1 진로목표

##### 가족

“가족만 같이 있으면 그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2)

“대학교 졸업하고, 돈도 벌고, 가족에게 재정적인 안정? 그거 해주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3)

고려인 청년들의 진로목표에는 거의 대부분 경제적인 것을 크게 부각시켜 이야기를 하였다. 돈을 벌어야 한다거나, 사업을 하여 돈을 벌겠다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에는 가족이 중심점

에 있었다. 가족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고 계속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진로목표를 지속하게 하는 요소를 다음과 같다고 대답하였다. 첫째, 힘든 일을 탈피하고 싶은 욕구 즉, 더 좋은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필요성이었다. 이는 호텔종사원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에서 희망이 높을수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동기부여를 한다[15]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둘째, 가족의 격려 셋째, 어려운 일을 해냈었던 경험의 힘이라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개인의 진로발달이나 선택에 있어서 장애를 만났을 때 얼마나 노력하고, 또 밀고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게 된다[7] 넷째, 책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강의와 같은 외부인의 동기부여 다섯째, 실제적인 실행 또는 실천 여섯째, 생각의 일깨움이 있게 하는 유용한 정보 일곱째,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봉사라고 하였다.

### 다른 사람을 도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대학을 세우고 싶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더 많이 지원하고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3)

“네. 기회를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굶고 있는 사람들 보다 기회를 없는 사람들이 저한테는 더 불쌍해보여요. ....(중략). 먼저 교육. 공부를 안하면 성장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5)

또한 돈을 많이 벌어서 기꺼이 자신들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싶다고 하였으며, 그 시작은 교육에 두고 싶다고 하였다.

### 삶을 즐김

“이탈리아. 축구 잘하잖아요. 유벤투스라는 클럽이 있거든요. 거기 팬이라서 거기 가고 싶어요. 뉴질랜드는 거기에서 낚시 하고 싶고요. 낚시랑 거기서는 아름답잖아요.” (연구 참여자 1)

한 참여자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기 위해 직업을 가지고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는 대답을 주었다. 이 참여자의 의 본질적인 목표는 삶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다.

### 4.1.2 진로장벽

진로장벽은 개인이 진로를 수행할 때 만나는 내적 외적 요소이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에게는 모두 그들의 진로에서 장벽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와 경제적 어려움과 그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의 부족, 정보의 한계성 등이 있다.

###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연구참여자의 생각과 적응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보가 된 느낌. 자기 생각도 표현할 수 없고 그래서 좀 불편한 게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말할 때 못 알아들으니깐 좀 불편하고 어려웠어요.” (연구참여자 6)

“제가 소통이 안 되서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씩 조금씩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한국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들의 한국어 능력은 양면성이 있어서 한국어 능력이 낮을 경우 한국 사회에 진입하거나 적응하는데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한국 사회와의 소통이 넓어지며 사회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문화의 차이

고려인 청년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표현했지만 아주 많은 문화의 차이를 느낀다고 하였다.

“사고방식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회사원이고 부장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꼭 말씀대로 해야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으면 반대로 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좀 다르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꼭 이렇게 해야 되죠.” (연구참여자 4)

“한국 직원들을 보면 막 사장님 앞에서 잘 해야 되고 막 항상 이렇게 (인사하고...) 그거 이상한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는 사장님이 와도) 일어나지도 않아도 되요. 그냥 만약에 사장님 여기 오고, 저랑 얘기하거나 저를 보면 그때만 일어나서 악수하는 거예요. 그것만.”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한국의 문화중 하나는 수직적 관계문화였다. 한국보다 비교적 수평적 관계를 가졌다고 알려진 고려인사회의식과 충돌을 경험하는 것이다.

## 음식 적응

고려인 청년들은 음식에 적응했던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음식. 한국음식에 오랫동안 적응했고 지금도 적응하고 있어요. 오징어나 새우나... (중략). 만약에 식당에서 해물이 나오면 쌀만먹고 찌개 먹고.” (연구참여자 2)

“네. 저도. 해물 잘 안먹어요.” (연구참여자 3)

##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 한국으로 이주하였는데 여전히 그 어려움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날 때가 거의 없어요. 12시간 일하고 집에 와서 피곤하잖아요. (한국어 공부) 못해요.” (연구참여자 6)

고려인 청년들 중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어를 배울 시간과 여건을 갖지

못하는 현실에 있었다. 이들이 가진 진로장벽은 개인이 가진 내적 요소가 되는 장벽으로 한국어와 음식문화적응이 있었고 외적 요소는 한국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 4.1.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 정보수집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무역 아카데미도 나중에 가보고 싶고, 아마 내년? 사업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서류 막 그것도 배우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5)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연구참여자 4)

고려인 청년들의 진로준비행동에서 정보수집의지가 있고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도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에 아직 어떻게 찾아야 할지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 도구를 준비함과 실천함

필요한 도구를 준비 하는가 아닌가는 진로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더 크거나 작게 한다.

“대학교랑 우리 서로 관계를 맺어서 한국 학생들을 러시아로 보낼 생각이 있어요. 지금 주말에, 오늘 (인터뷰 당시 토요일이었음) 내일이나... (지금 러시아 PPT 가 있는데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 해야되고 그리고 잘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3)  
“일단 한국어를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해서 많이 알아봐야죠. 그다음에 할 수 있도록 사업..”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들의 진로목표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근거리에서 있는 목표부터 실행해 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진로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준비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고려인 청년의 진로준비행동은 아직 분명하게 준비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부지런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경우 목표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청년들의 진로목표는 무엇이고, 또한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한 진로준비행동은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의 각 사례별 진로목표는 가족을 위해 경제적인 면을 튼튼히 함과, 다른 사람을 도움, 그리고 삶을 즐기기가 있었다. 또한 그들의 진로준비행동에서 정보를 찾는 행동과 도구를 준비하는 행동 그리고 실천하는 세부 분류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을 때 그들의 진로준비행동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다만 목표가 세부적으로 설정이 되었을 때는 진로준비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인 청년들의 진로목표의 경우 더 많은 세부 목표와 실천사항들이 조직되어야 한다. 고려인 청년들이 한국에서 그들의 삶 속에 진로를 발달시켜 나가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으로 이주한 고려인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공부할 다양한 기회와 여건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민을 위하여 타 문화에 대한 긍정성과 타문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려인 청년들이 진로를 통해 그들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더 많은 정보를 접할 기회를 갖도록 사회적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1] B. J. Jung, B. Nam, Emigrant and Identity of Koryuin. *Journal of Kanhun*, (2011). Vol- No. 120, pp. 228-260.
- [2] Y. S. Kim, I. H. Hong, A Study on Central Asian Koryoin Migration in Gwangju Area and Acculturation. *Journal of DIASPORA Studies*. (2013), Vol7, No. 1, pp. 131-161
- [3] I. K. Kim, Career exploration and future design. Paju Yang seo won, (2015).
- [4] I. J. Yun, Social Identity and Language Use Patterns of Koreans in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Studies of Korean Abroad*. (2014), Vol33, No. - pp. 63-91.
- [5] J. A. Jung, A Study on the Life Culture of Koryosaram and Sakhalin Koreans Living in Korea and Their Cultural Conflicts with South Koreans. (2014). Vol58, No. -, pp. 35-65.
- [6] H. J. Shin, Transnational Mobility and Transcultural Practices of Koryosaram(CIS Korean) in the Post-Soviet Space- The Lifeworld and Negotiations of Koryosaram in South Korea. *Jornal of SAI*, (2012), Vol12, No. - pp. 167-214.
- [7] H. L. Lee, B. K. Song, W. S. Park, E. K. Ue, K. H. K. Kim, S. M. Kim, J. Y. Lee, D. H. Lee, K. Y. Park, J. H. B, M. S. Kim, Career Counseling, kyoyookbook, (2013).
- [8] Bandura, 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6).
- [9] J. C. Lee, B. H. Jo, I. H. Choi, K. H. Yim, M. J. Park, J. H. Kim, M. S. Jung, J. I, Choi, S. R. Kim,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unseling. Paju: Academypress, (2014).
- [10] J. A. Lee, W. Y. Choi, The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f Variables that affect College Students' Career Choice Actions. *The study of careere edu*, (2010), Vol23, No. 2, pp. 101-121.
- [11] E. K. Yim, A Review of Woman's Career Barriers. *Journal of Korea career counseling*, (1998), Vol3, No.



1, 79-97.

- [12] S. J. Kim,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Hop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Career Pr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2005), Ph, D, Hongik university.
- [13] M. H. Lee, Structural relationship for influencing major persist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engineering college students. (2015),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14] Y. J. Kim, Y. W. Song, A Study on the Obstacle Factors and Development Strategy for Air Logistics Industry of Korea Using In-depth Interview Method. *Jornal of Korea Air management*, (2014), Vol12, No. 6, pp. 23-41.
- [15] E. K. Shin, O. W. Cha, J. K. Kim, Moderation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Effects of Hotel Employees' Self-Efficacy to Job Performance. (2015), Vol11, No. 3, pp. 83-108.